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

울산시장 의장 각계지도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을 함께 말씀 나누자고 울산 방문했습니다. 균형발전은 그 자체가 목표이자 수단으로 중요한 전략입니다. 잘 살자는 게 목표인데 잘산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산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높은 수준을 향유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뜻에 숨은 것처럼 잘산다는 목표를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중요한 성장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총량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전략이 혁신과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는 한국이 골고루 잘살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을 중요한 성장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도권은 이대로는 지속적 발전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문제 엄청난 공해, 교통, 주택교육비용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체도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격차는 경제적 비효율적이며 분열과 갈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호남 지역갈등 이상의 갈등이 중앙과 지방간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하자고 내세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도 타 지역, 서울 못지않게 살려는 욕구입니다. 한발 더 나가면 우리지역이 가장 앞서서 전국 성장을 이끌어가려는 욕구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이고, 울산 관점에서 볼 때는 울산이 잘살자는 것이고 울산이 앞서서가자 이끌어가자는 목표입니다. 이 회의는 전국적으로는 균형발전, 울산으로는 울산 잘사는 길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울산이 잘 사는 길을 찾으면 그게 균형발전입니다.

혁신의 시대에는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혁신역량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지방을 오게 되면 선물을 뭘 싸가지고 갈까, 지방에서는 무슨 선물을 가져올까 합니다. 선물 챙기려고 많이 고심했습니다. 역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자본 투입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거기에 적당한 응용기술만 있어도 투자를 많이 하면 지역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산관학연 하나로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지 않고, 돈 몇 푼으로, 다리나 도로 하나주고는 승부가 안됩니다. 혁신의 시대에는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혁신역량을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사업하나 두개 선물을 가져다주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넉넉합니다. 혁신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성공으로 이르기 때문에 예산투입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는 예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간 이런 전략 가지고 여러 차례 직·간접으로 대화해왔습니다. 울산이 대단한 지역의 지도적 역량이 잘 구축돼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 역량을 잘 모아가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의논하러 왔습니다.

오늘 토론 때에는 혁신의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적, 자치적 혁신역량의 방향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에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배우고 도와드릴 것을 찾고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숙원적 민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울산국립대학교 설립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신항만, 도로는 나중에 점심때 말씀해 주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자체적 혁신역량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날 지역 발전의 중심체가 대학교입니다.

국립대학교 문제는 공약입니다. 이것은 합리적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보면 대학교가 넘칩니다. 그러나 분권적 입장에서 울산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이 남는다고 해서 울산이 모자라는 데 안 해 주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울산의 사정에 따라 대학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지역 발전의 중심체가 대학교입니다. 인재도 대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다 했는데, 교육부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서 우물우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대개편해서 대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해서 추진해주시고. 아마 시민들이 모이면 두세 개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한 방향이 나오면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합백화점식의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울산에 적합한 감당할 수 있고 적합한 것을 만들자고 하면 의견이 조금 나뉘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그 작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올라가서 청와대에 대통령 산하에 자문기구로 울산국립대학설립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이 한발 앞서가고 정부가 한

발 뒤서가면서 안을 만들고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조정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울산에서도 많은 부담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울산은 부담은 적고 덩치는 크면 좋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울산이 좀 많이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버겁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협상하는 자세로 조율해나갑시다.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결정했습니다. 어느 규모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협상하는 자세로 해 나가서 가장 효율적인 대학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전부 갈라서 지자체로 나눠준 셈이 됐습니다.

제 시간이 남았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 시의회 의장께서 제가 안쓰러운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청이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그 말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뜻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 시대가 오고, 혁신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전부 갈라서 지자체로 나눠준 셈이 됐습니다. 오늘 방망이를 확실히 나눠줄 때니까 울산에서 방망이를 잘 써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앙정부로서는 균형발전 전략, 지자체로서는 지역혁신 전략을 통해서, 통해 새롭게 도약해봅시다. 오늘 좋은 토론해주시고 토론 마치고 4-5분 필요한 언급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문제는 토론 때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 실무적인 작업을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